



관광객·도민 신뢰 저버린 ‘맛집’들

자치경찰 설 앞뒤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단속
유명 맛집·대형호텔·일반음식점 등 18곳 들통

관광객이 자주 찾는 유명 호텔, 음식점, 골프장 등에서 식자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부정식품을 유통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대형 호텔, 유명 맛집, 관광 식당 등 명소로 알려진 일대를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유명호텔 8개소, 일반 음식점 9개소, 골프장 1개소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11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 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 등 총 18건이다.

자치경찰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횡집과 대형 관

광식당,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중국 음식 전문점 등 7개소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적발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삶은 족발과 멸치액젓 등을 보관한 유명 관광호텔과 냉동유부, 다시다, 초밥소스와 레몬식초 등을 보관한 유명 중국 음식점 등 6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국내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과 닭고기와 소고기, 꽃게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호텔 등 5개소는 행정시로 통

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식품표시기준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강다혜기자

단독경보기가 대형 화재 막았다

소방 “25일 애월읍 공동주택 화재 최소화 ‘톡톡’”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던 공동주택 화재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덕에 피해를 최소화했다.

26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1시10분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의 한 공동주택 2층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방안에 있던 거주자가 거실에서 ‘타닥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려 확인한 결과 소파(사진)에서 화염과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집 안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전동소파 접속케이블 부분에서 접촉 불량에 따른 스파크 현상이 발견되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안 일부와 전동소파 등이 화재로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145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문동원 서부소방서장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없었다면 화재 발견이 늦어져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간단한 설치로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된 화재는 총 7건으로 화재로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145

김도영기자

15개월된 아동 학대 혐의
40대 보육교사 항소심 무죄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보육교사 A(41·여)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 집에 다니는 15개월 아동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세뱃돈은 신권으로...” 설을 앞둔 26일 제주시 한국은행 제주본부 앞에 신권을 교환하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이상국기자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초등생 참변

문에 옷 끼며 차에 치여 숨져… 사고 당시 동승보호자 없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에 9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재주로부터 인근 도로에서 9살 A양이 학원 승합차량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양이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

만 결국 숨졌다.

사고는 A양이 학원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옷자락이 문에 끼였고 그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고 차량에는 학생들의 승하차를 돕고 안전을 확인하는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차량 운전자 B(60대)씨는 A양이 차량에서 내린 이후 안전한 곳

에 도착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차량 운영자의 경우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동승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며 이 동승 보호

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학원 원장(차량 운전자) 50대 여성 C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향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는 총 41건으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53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60대 항소 기각

재판부 “자수가 면죄부 아냐”

흥기를 휘둘러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6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양경찰서 A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7월 4일 새벽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녀 A(45)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곧바로 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던 B(66)씨를 찾아가 흥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임씨는 지난 2008년 6월 16일 또 다른 동거녀의 내연남에게 흥기를 휘두르는 등 두번의 살인미수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짹새야” 경찰 놀리고 때린 해경 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른 제주해양경찰관에

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해양경찰서 A경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해 7월 4일 새벽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짹새”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경장에게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송은범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잔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애월읍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향) 1,2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파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변이치),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묘목(1000본 이상)

오하라베니
자연종묘 착과모습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반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굴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독) 1, 4년생	·궁천 변이치(오하라베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